

“입다와 암몬 왕”

❖ 사사기 11:12-28

- 12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 13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 달라 하니라
- 14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 15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16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 17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 18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 19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훈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 20 시훈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 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 21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훈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 22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 2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나
- 24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 25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삼백 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 27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 28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입다와 암몬 왕의 논쟁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는 관계 없이, 출세를 목적으로 머리와 장관이 되어 달라는 장로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입다는 암몬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와 전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읍니다. 암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자기 조상들의 땅을 강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길르앗 땅을 내놓으라는 말을 전합니다.

입다는 다시 사자들을 보내서 암몬 왕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입다의 주장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로 역사적으로 길르앗은 암몬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주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먼저 에돔 왕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거절하는 바람에 좀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모압 왕에게 길을 내달라고 부탁했지만 마찬가지로 거절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혼에게 길을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혼은 길을 내주기는 커녕 오히려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시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세를 몰아 더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까지 격파한 결과 길르앗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는 전혀 접촉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는 너희 신 그모스가 준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만족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모스는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암몬의 신은 밀곰이었는데 왜 입다가 그모스를 암몬의 신으로 언급했는지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암몬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다는 현실적으로 암몬 왕에게는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입다는 “네가 모압의 왕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22장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무당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합니다. 천하의 발락도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전쟁을 치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하찮은 당신이 감히 우리와 싸우겠느냐는 것입니다.

입다는 지난 300년 동안 아무 소리 못한 네가 이제와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려하니,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판단하실 것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명분과 증거

암몬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조상들의 땅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해 내세운 한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입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목조목 반박은 하지만 “네가 발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면서 조롱하고 도발한 것입니다. 입다 또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의 명분을 얻기 위해 사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입다의 인격이나 성품이 어떨든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애원할만한 용사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차피 싸울 것이면서 왜 피곤한 말싸움을 벌이고 있을까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공무원 출신 최민식씨가 조폭 두목인 하정우씨에게 “우리가 저쪽보다 센데 그냥 싸우면 되지 왜 눈치를 살피냐”고 하니 하정우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그래서 명분을 얻기 위해 최민식씨가 일부러 얻어 맞고 옵니다. 조폭들도 명분을 내세우는 마당에 국가 간의 전쟁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종교적 명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자신들이 정당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기를 고취시켜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큼이나 전쟁에 합당한 명분을 갖추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긴다해도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신명기 2:16-25을 읽겠습니다.

❖ 신명기 2:16-25

16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17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19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20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뱃이라 일컬었으며

21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22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23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24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는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흔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25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입다는 조폭 두목이었지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입다의 주장은 민수기 20-24장, 그리고 신명기 2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돔, 모압, 암몬 족속과는 싸움을 피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혈육 관계로,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과 길르앗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입다와 암몬 왕 둘의 말을 모두 들어보니 암몬 왕이 말이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시겠지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입다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첩의 아들로 태어나 고생한 입다가 안쓰럽기 느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입다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입다와 암몬 왕의 논쟁은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연상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 이후로 1차 대전이 일어나기까

지, 오랜 시간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랍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혈연을 중요시하지만 증근동은 혈연보다는 종교와 언어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1차 세계 대전에서 오스만투르크가 패하면서 지배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2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 다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원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의 중재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1948년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 현재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 만한 작은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현재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안지구에는 동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예리고 등 성경에 등장하는 익숙한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파타”라고 하는 비교적 온건한 정당이 집권 중입니다. 그런데 서안지구에는 유대인 정착촌이 많이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통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자 지구는 경상남도 사천 만한 작은 땅에 200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철수한 후로 “하마스”라는 강경파 정당이 집권 중이며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서안지구에서도 종종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출동해서 온 마을을 뒤집어 놓습니다. 영장도 없이 민간인의 집에 들어가 용의자를 체포해 갑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이란의 지원을 받아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방어하고 보복으로 무차별로 폭격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들은 서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준 땅을 강탈 당했으니 돌려 받아야 한다는 종교적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테러와 폭격에 맞선 정당한 방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인가요?

파우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더 많이 공감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하마스를 독립군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독립군이 아닙니다. 그들이 괜히 보복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는 일본 총리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험한 발언을 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반이스라엘 정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애꿎은 민간인만 희생 당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친밀감을 느낍니다. 오죽하면 광화문 집회 때에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성경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는데 반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2% 정도인 반면,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구는 6%정도 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이스라엘에서 만든 “파우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랍 계열 유대인들로 이뤄진 이스라엘 특수부대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지만 아랍인과 외모로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아랍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아랍의 종교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런 군인들로 이뤄진 특수부대가 서안지구나 가자지구에 침투해서 테러범과 싸우는 내용인데, 현실적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만든 드라마 치고는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파우다”라는 히브리어로 “혼돈”이라는 의미입니다. 팔레스타인 테러범이든 이스라엘 특수부대 요원이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도 없고 정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입다와 암몬 왕의 논쟁과 다를 바 없습니다. 피차 온갖 종교적, 정치적 명분을 다 내세우지만 사실상 전쟁을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응원할 이유도 없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응원할 이유도 없습니다. 과거에 그 땅이 누구의 소유였는지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폭력과 복수를 멈춰야 합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공동의 악으로 규정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지금으로써는 실현 불가능해 보여도 그렇게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판단과 선택의 기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분야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학문이든 언론이든 사상이든 워낙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여러 주장들이 상충됩니다.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든 입다와 암몬 왕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 한 가운데 뛰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판단과 선택의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나 경험, 현재 자신의 입장, 자기가 바라보는 장래의 전망 등에 입각해서 결정하겠지요. 그런데 그 결정은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이유와 사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개인의 이익 여부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도 안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본능에 이끌려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우리가 입다의 말이 진실임을 성경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판단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편향되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치우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가요? 그 누구도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치우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1-32을 읽겠습니다.

❖ 요한복음 8:31-32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불신자들의 삶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기가 고수해왔던 입장, 주장, 사상을 다 거짓된 것으로 여겨 철회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이켜 진리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구원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자니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생에서의 삶은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 받는 것이 더 중요하는 것과, 내 맘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중압감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후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저는 제가 남에게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야 복을 받고,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불행이 닥칠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구원을 비롯한 삶의 주관자를 하나님이 아닌 저 자신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과 개혁주의 교리를 배운 후에야 구원을 비롯한 신자의 모든 것과 더 나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식은 어떻게든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거짓에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치우치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치우칩시다

저는 학교에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이유는 로마 황제의 정치적인 선택 때문이었다고 배웠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한 중세는 암흑기였고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인들이 평화롭게 사는 무슬림들에게 저지른 죄악이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진화론이 발표되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신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어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반기독교로 치우친 사람들이 현대의 학문과 사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편향된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에 적대적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사태의 주변인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미안해 해야 하는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사상은 일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몇몇 사건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이나, 인터넷,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나,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말과 같이

늘 보고 접하는 것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죄악에 치우친 세상에 살면서 진리되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배와 기도와 성경 연구에 힘쓸 것을 간절히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유익도, 즐거움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매일 읽는 말씀과 매일 드리는 기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로 치우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내 경험이나 생각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진리 안에서 약속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볼 질문들

1. 세상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처럼 주장되는 것과 자신의 신앙이 일치하지 않아 걸림이 된 적이 있나요?
2.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 경험이 있나요?
3. 하나님께로 치우쳐 진리의 말씀을 판단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